

양계수익을 올리기 위한 캠페인(2)

사료의 손실을 막읍시다

백 인 종
(축산시험장)

여기 산란계 10,000수를 확보한 양계장 주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대부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도 사소한 일에 도저히 신경쓸 겨룰이 없었으나 몇달전 주의를 환기, 체크해보니 계란 1타스 생산에 약2kg의 사료가 소비됨을 알았다. 그는 사료소비가 약간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료를 허비하여 비용이 올라가는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부화장 세일즈맨이 와서 계란 1타스 생산에 필요한 기준 사료요구량은 약 1.86kg라고 했다. 그때 그는 계란 1타스당 140g의 사료가 낭비됨을 알았다. 그래서 곰곰히 계산해보니 1년에 1마리가 계란 20타스 생산하면 1타스당 140g 손실이니 20타스면 2.8kg의 사료를 낭비하고 년간수당 140원의 돈을 버리고 있음을 알았다. 1마리당 140원의 손실은 10,000수면 140,000원의 돈을 매년 버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는 사소한 사료의 손실이 수익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가 알게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고용인에게 하루 1회 사료를 주던것을 2회로 나누어 주도록 하고 사료운반통은 좀더 서서히 끌도록 하였다. 지금 그는 계란 1타스당 1.86kg의 사료를 소비하고 있으며 사소한 손실에 신경을 쓴 댓가로 전보다 1년에 140,000원의 돈을 더 벌고있다.

사료손실을 초래하는 요소는 당신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세심한 주의를 하지않는 사이에 매일매일 비싼사료가 흘려 없어지고 있다. 손실은 사료를 주기전에도 일어나고 사료를 주고나서도 항상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그러나 주인들은 대부분 너무 바빠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사소한 손실을 쌓아서 한꺼번에 쏟아 없앤다면 절찍 뛰면서 짐장에 강한 속크를 받을것이다. 그러면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과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당신에게 얼마나 더 이익을 갖다줄수 있나 계산해 보기로 하자.

운반도중

양계장에 주문한 사료가 도착했다. 고용인 혹은 가족이 총동원하여 삼륜차에서 사료 한포대 씩을 들려메고 창고입구까지 뛰어가 창고안으로 집어던지는 경우 소량이나마 흘리기 마련이다. 사료포대는 어느것이나 완전하지 못하고 어

떤것은 눈에 보이게 출출 새는 것도 있다. 사료를 자주 옮겨 쌓을수록 자주 길에 뿌려 앉애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은 손실은 사료운반통의 조작에서 일어난다. 포대를 뜯어 통에 부어 넣을때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또 운반통에 사료를 가득히 채워 심고 계사통로를 향해 급히 달려가는 경우 이터한 부주의로 아까운 사료를 버려서는 안된다. 이런 손실은 일의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쉽게 방지할 수 있다.

저장중의 손실

사료창고를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고내의 온도 습도 그리고 환기상태는 사료의 변질속도와 비례한다. 특히 여름장마철 방수가 되지않아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수익은 기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창고에 먼저 들여온 사료는 남아있지 않나 확인하여 일단 들여온 사료는 다 먹이고 다음 사료를 먹이도록하여 품평이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굽이기의 구조

굽이기의 구조와 크기를 적절히 만들면 상당히 많은 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굽이기가 너무 좁으면 사료를 너무 가득히 펴아주기 때문에 탑이 해쳐내는 손실량이 많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필요량이상 주기 쉽기 때문에 손실이 된다. 굽이기의 구조에 따라 없어지는 사료량을 보면 깊이 $4\frac{1}{2}'' \times$ 넓이 $6\frac{3}{4}''$ 일때 넓간 수당 1.9kg의 사료손실이 있었고 $35'' \times 6\frac{3}{4}''$ 일때 2.8kg의 손실 $2\frac{1}{2}'' \times 3\frac{1}{4}''$ 일때 무려 63.6kg의 손실이 있었다. 이와같이 굽이기의 구조에 무관심하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굽이기의 제작 주문시 차가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를 주문해야 할 것이다.

평사시에는 굽이기의 높이가 중요하다. 가능하면 병아리가 성장함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굽이기의 높이가 병아리 등 높이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해쳐내거나 닭통의 오염을 막기위해 철사같은 것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것도 잊지말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굽이기의 크기가 적절하면 계란 12개 생산에 약 45g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럼 1마리가 1년에 900g, 10,000수면 9톤 약 450,000원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1월 2회급여

사료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에 두번 급여하여야 한다. 굽이기에 사료가 궁 채워져 있는가. 이때 사료의 높이가 1눌인치가 되며 굽이기 높이는 4눌인치가 되는가 확인해야한다. 굽이 간격을 연장시켜서라도 하루에 한번은 굽이기내의 사료를 완전히 섭취시켜 영양소를 골고루 취하게 한다. 굽이기내 사료를 저어주면 사료입자의 분리를 원화시키고 곰팡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사료가 한쪽에 몰려 밖으로 손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계란을 수집할때 사료를 저어주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굽이기와 운반통에 눈금을

운반통의 눈금은 매일 저울에 사료를 달지 않



아도 된다. 따라서 과량을 살고 냉르는 일도 없고 다른곳에 신경을 더 쓸 여유를 준다. 굽이기에는 적당한 흥의 사료를 채워줌과 동시에 균일하게 채워주도록 표시를 해주는것이 효과적이다. 굽이기에서 사료를 해쳐내는 것을 최소로 하기위해 굽이기내 송보다 약간 위로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어떤 실험에 의하면 송에서 1로 증가하여 채워주었더니 사료손실이 2배 증가했다고 한다. 굽이기내에 어느곳은 너무 많은 사료가 쌓여있고 어느곳은 너무적게 있어 불필요한 사료의 낭비를 증가시켜서는 안되겠다. 만약 굽이기내 사료가 초과하면 해쳐내는 손실까지 100수당 하루에 10.9kg의 사료가 낭비된다. 10,000수면 1,090kg이 되고 하루에 54,500원을 흘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은 당신이 만약 무관심 했다면 바로 당신집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들이 떨어져

케이지에서는 굽이기와 급수기의 위치도 중요하다. 급수기는 굽이기 밑에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급수기가 위에 있다면 물방울이 굽이기의 사료에 떨어져 곰팡이의 발생이 촉진된다. 자동 급수장치를 했다면 급수판이 사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자의 불균일

어느 닭이나 큰 입자를 골라먹는 경향이 있다. 닭은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의 보고인 알곡이 너무 굽어 닭이 알곡만 골라먹어 버리면 다른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생산성이 저하된다. 반대로 입자가 너무 미세해도 손실을 준다. 입자가 너무 미세하고 고우면 닭의 부리에 물어 급수기 속으로 낭비되는 양이 있다. 이 경우 급수기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욱 손실이 심한데 보통 1년에 1마리가 1.36~1.81kg의 사료를 물통 속으로 없애고 있다. 또 입자가 너무 미세하면 바람에 날리는 양을 무시할 수 없다. 사료의 결, 즉 입자를 항상 체크해서 적절히 분쇄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료효율은 적절한가?

사료효율은 산란율과 사료소비량에 좌우되므로 현재의 사료소비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소비량은 매주 체크하여 100수당 몇 kg의 사료가 소비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료소비량은 산란율이 외에도 닭의 품종 혹은 체중, 사료의 에너지 함량, 질병 혹은 스테레스, 영양소의 결핍, 온도, 날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료의 손실은 아주 단순하다. 만약 사료급여전에 100수당 혹은 1,000수당 필요한 사료량을 저울에 달지 않고 급이기에 들판 주는 경우 닭은 자기 요구량이상 섭취하게 되고 더 섭취한 만큼 계란을 더 낳아주지는 않는다. 반대로 요구량 이하 섭취하게 되면 산란율이 그만큼 저하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필요량 이상의 사료를 주어 1마리가 1일 5g의 사료를 더 섭취한다고 가정하자, 10,000수면 25kg 즉 약 2,500원을 하루에 낭비했고 1년에 912,500원을 낭비하고 있다. 산란계의 기본요구량을 잘 보이는 끝에 적어놓고 매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란계의 기준 사료효율은 표와 같다.

[표] 산란계의 기준 사료효율

| 주 령 | 사료효율 (lb) | 산 란 율 (%) |
|-------|--------------|--------------|
| 26~29 | 4.56 | 58.9 |
| 30~33 | 3.21 | 87.0 |
| 34~37 | 3.28 | 84.8 |
| 38~41 | 3.39 | 82.7 |
| 42~45 | 3.49 | 80.5 |
| 46~49 | 3.62 | 78.5 |
| 50~53 | 3.75 | 76.2 |
| 54~57 | 3.87 | 74.2 |
| 58~61 | 4.04 | 72.0 |
| 62~65 | 4.16 | 69.8 |
| 66~69 | 4.30 | 67.5 |
| 70~73 | 4.46 | 65.2 |
| 74~77 | 4.60 | 63.4 |
| 78~81 | 4.79 | 61.6 |

※ 사료 효율 = $\frac{\text{사료소비량(kg)} \times 2.2}{\text{계란수} \div 12}$

계사내의 온도

추우면 사료요구량 및 섭취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겨울에 계사 내부가 너무 춥지 않도록 방한설비를 하고 적절한 환기장치로 과도한 습도를 제거해 보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방한설비의 경비보다 추워서 더 먹는 사료비가 더 비싸다. 개방계사인 경우 겨울에 방풍계획을 세워 너무 차거운 바람을 막고 급수기의 물이 너무 차겁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이 어느정도 차거우면 사료섭취가 저하하여 생산능력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급수관은 두껍게 쌓아 보온할 필요가 있다.

여름에는 사료를 많이 섭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충분한 통풍으로 능력발휘에 필요한 충분한 사료를 섭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계급여에서의 문제점

노후화로 밭에서 푸영이 빙어나 채그려져 상당한 출결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최소한 1달에 1회씩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계급여시는 물이기에 적절한 양이 균일하게 채워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체식은 자동식이 아니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쥐

쥐 1마리는 1년에 약 12 kg의 사료를 먹어 치우고 약 3배의 사료를 뜯쓰게 만든다. 당신의 양계장에 혹은 사료창고에서 쥐 한마리를 발견하고 그놈을 잡아 죽였다고해서 쥐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쥐 한마리가 발견되면 그 근처에는 약 50마리 이상이 숨어살고 있다. 한마리가 1년에 2,500원의 사료를 먹거나 뜯쓰게 만드므로 50마리면 1년에 125,000원을 쥐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2~5%의 손실

사료손실을 일으키는 요소는 이상 열거한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것은 평소에 발견하는 대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보통 양계장에서 사료손실탕은 총구입 사료의 2~5%이다. 이것을 사료효율로 계산하면 계란 12개 생산에 4~4.15 lb의 차이와 같다. 0.15 lb의 차이는 작게 보이지만 10,000수에 대한 1년간의 차이로 계산하면 약 30,000 lb의 사료의 차이가 있고 약 680,000원의 차이가 있다. 만약 당신이 사소한 사료의 손실에 신경을 쓰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사료의 손실을 5%에서 2%로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 계란 12개 당 4.15 lb의 사료소비를 4 lb로 사료효율을 개선하여 1년에 1마리당 68원 1,000수면 68,000원 10,000수면 680,000원의 돈을 더 벌수가 있다.

설파디메톡신+비타민K
강력질병예방 치료제

SF-설파-K

SF® 과학사료공사

공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망우지구 22-4

TEL. 28-5537

협성가축약품공사

(협성가축병원부설)

치유우 · 닭 · 기타 · 사료첨가제 · 일체총판

기타 · 예방약 · 소독약

서울청량리역전오스카극장앞

연 두 회

주간 (92) 7797

야간 (96) 9231

